

대학 사회교육기관의 발전 방안

박 노 열 계명대 사회교육원 교수

1. 머리말

교육의 오랜 역사에서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생긴 것은 불과 30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용어의 역사가 일천한 데 비하여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는 시대적 적합성에 의해 주요한 개념적 지위를 획득하였고, 교육체제의 전반을 재구성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랫동안 교육체제의 대상은 아동과 청소년에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른 사회의 발전은 교육대상의 한계를 허물어뜨렸다.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학습의 필요성은 생존문제로까지 인식되기 시작했고, 평생학습사회 개념을 태동시켰다. 이제 교육은 어느 특정한 대상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평생교육은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교육적 행위를 가리킨다. 평생교육은 성인교육을 겨냥하여 발전해 왔으며, 이것이 대학사회교육의 핵심적 과제가 되었다. 대학의 문을 넓히자. 혹은 개방하자'는 주장은 바로 성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견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성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킬 만한 곳으로 대학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합한 곳이라 할 수 있다. 대학 사회교육

원은 그러한 성인들을 위한 교육의 활동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이제 우리 나라의 대학 대부분이 성인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대학사회교육협회가 결성될 때가 '80년대 말인데, 그때 불과 9개 대학이었던 것이 10년이 지난 현재는 125개의 대학이 협회를 구성하게 될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또한 협회 회원대학이 아니지만 교육부에 보고된 대학이 거의 100개 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발전에 비해 우리 나라 대학 사회교육기관의 질적인 면은 아직도 걸음마 정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작금의 현실은 대학 사회교육기관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대학 사회교육기관의 발전에 대한 논의는 시의적절한 것이라 생각하며, 이 글에서는 대학 사회교육기관의 기본 역할, 설치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2. 대학 사회교육기관의 기본 역할

대학 사회교육기관의 발전을 논하기 위해서는, 왜 대학이 사회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 역할과

기능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대학 사회교육기관이 지향할 방향을 제시 못할 것이고 발전방향도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학 사회교육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만일 일반 사회교육기관과 동일하다면, 구태여 대학이 그 역할을 중복해서 자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학만이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활동이 아니라면, 대학 사회교육기관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일이다.

대학 사회교육기관의 기본적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논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개인의 학습에 대한 역할이고, 두 번째는 사회의 학습화와 관련한 역할이다.

1) 개인의 학습화

교육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육은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의 충족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Bergevien은 그의 저서 『성인교육 철학』에서 성인교육의 목적은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자유로운 사회에서 창조적인 삶의 성취에 두는 것이 가장 적절한 목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다음과 같이 명료화하고 있다(P. Bergevin, 1976).

- ① 성인학습자가 만족감을 얻고 삶의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준다.
- ② 성인학습자가 자신의 재능과 한계 그리고 타자와의 관련성 등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 ③ 성인학습자가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 ④ 성인학습자가 정신적, 문화적, 육체적, 정치적, 직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제공한다.
- ⑤ 성인학습자에게 읽고 쓰는 능력, 직업기술, 건강측정과 같은 생존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Gardner는 교육의 목적에 대해 "현대생활에서

교육은 매우 절박하고도 한정된 과제들을 지니고 있다. 그 과제란 교육을 통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재능을 개발해 내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과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을 성취하느라고 우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본 목적들, 즉 개인 성취를 촉진시키는 것과 사회적으로 자유롭고 이성적이며 책임감이 강한 남·여를 길러내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J. Gardner, 1960)라고 말하고 있다.

개인의 재능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성취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을 Maslow는 인간의 본능이라 간주한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본능적이고 생리적인 생존의 욕구에서부터 자기 자신의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고 자아실현을 꾀하려는 욕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욕구로서 학습욕구란 이러한 다양한 욕구의 한 형태로서, 알고자 하는 욕구,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A. H. Maslow, 1970).

인간은 자아실현을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며, 이러한 노력의 한 부분으로서 끊임없이 학습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적 욕구는 한 개인이나 기관·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상태'와 '현재의 상태' 간의 격차로 정의되고 있으며, 그러한 교육적 욕구의 발생이 바로 성인학습의 동기가 되는 것이다.

학습사회에 있어서의 교육은 평생에 대한 학습적 원조이며 개인에 대한 창조적 기능이다. 성인에게 있어 이러한 계속교육을 가능케 하는 열쇠는 자기능동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의 개발이다.

자기능동적 학습이란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세우고, 학습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인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보충하고,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도움을 받든, 받지 않든 개인이 주도권을 쥐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능동적 학습은 학습자의 독립성과 자주성, 그리고 학습에의 동기부여나 계획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M. S. Knowles, 1976).

이러한 자기능동적 학습을 유지, 개선,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대학 사회교육의 커리큘럼에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이 통제관리적 성격을 띠는데 반하여 성인교육의 정신은 자신에 의한 자기선택, 자기학습, 자기평가, 자기발전이므로 이에 알맞는 성인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인교육에 있어서 인간이란 주도권, 의도성, 선택, 자유, 정력(energy)과 책임감을 지닌 자기능동적 유기체임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대학은 최고의 학문적 권위를 유지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창조하고 발전시켜 가는 곳이기 때문에, 대학은 성인의 '자기(개인) 학습화'의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각 단계에서 자기 실현을 충족시키려는 모든 남녀 성인에게 대학은 개인의 학습화의 기회를 마땅히 제공해야 하고, 그래야만 '사회의 학습화' 분위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전반적인 사회의 발전을 주도하는 주체는 성인학습자들이므로 대학의 교육은 이러한 의미에서 성인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사회의 학습화

과거 대부분의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의 내용이 앞으로의 삶을 위한 일차리에 의해 좌우되었다. 특히 성인 초기에 종결되는 교육은 전문적 훈련을 필요로 하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선택되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교육 또는 학문은 노동을 위한 준비로 간주되어 왔으며, 교육은 어린이가 겪어야 할 병으로 간주되었다. Hutchins는 이러한 교육 여건을 다음과 같이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한번 교육을 받고 나면 그것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받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관행은 교육제도의 조직이 단계화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각 단계에 도달하면 그것이 지나는 단계는 '졸업' 했다는 것이다. 교육이 직업, 결혼, 학위를 위한 도구로 간주된다면 그 목표가 달성될 때, 교육의 목적은 실현된 것으로 생각했다. 교육이 일정한 시기에 끝나는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라면 교육은 그 시기 이후에는 아무런 관

계가 없는 것이다”(R. M. Hutchins, 1968).

그러나 오늘날에는 직업적 변화, 국제 이동, 변화된 상황에의 부적응으로 인한 소외감, 기존 지식의 낙후성, 여가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성인으로 하여금 모든 교육활동에 제입문하도록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지식·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됨으로써 노동의 유형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그 전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래의 직업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재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 기술, 정보가 폭주하는 사회에 알맞는 순환 교육(recurrent education)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취업 후에도 교육을 받으려는 근로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 현상은 생애에 걸쳐서 일정한 정형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의 권리를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기회의 균등화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오늘날 대부분의 직업은 인간에게 보다 짧은 노동시간과 그에 수반되는 여가의 증가를 가져다 주고 있다. 즉, 현대의 급격한 과학기술의 진보는 현대인에게 풍요와 여가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고대로부터 풍요와 여가는 인간사회를 쾌락과 안일, 범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만드는 구실을 할 수도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부패한 사회와 훌륭한 사회의 구분은 그 사회가 학습하는 분위기나 그렇지 않느냐에 크게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여가는 그냥두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기 쉽기 때문에 개인이나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성인들이 평생학습자로서, 개인적으로는 일상생활의 여가 속에서 학습을 생활화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사회적으로는 학습을 촉진하고 원조하는 계획적 지원시책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보장함으로써

훌륭한 사회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의 계속교육에서는 '언제든지', '모든 사람들'의 학습욕구와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정책의 시행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학습사회(learning society)'를 지향하고 있다. '학습사회'란 '언제든지' 성인생활의 모든 단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시제(part-time)의 성인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학문·성취·인간이 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고 모든 기관이 이 목적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가치관을 전환시키는 데 성공한 사회이다.(Hutchins, 1968) 이처럼 학습사회란 학습·성취·인간화를 목적으로 하며, 모든 계도가 그 목적의 실현을 지향하도록 가치의 전환을 이룩한 사회이며, 구성원 모두가 자기의 능력을 최고 한도까지 발달시킬 것을 지향하는 사회이다.

여기서 학습사회를 이끄는 주체는 성인학습자 개인의 의지뿐 아니라 지적, 문화적, 도덕적 진보의 선두에 서 있는 대학기관의 의지를 함축하고 있다. 즉, 사회발전을 선도하고 대학이 '사회의 학습화' 분위기를 유도하는 가장 적합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대학 사회교육기관의 현황과 문제

이 장에서는 대학 사회교육원의 설치현황, 각 기관의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의 유형과 그 내용, 운영상황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학의 사회교육활동에 관한 동향을 개괄적으로 분석한다.

1) 대학 사회교육원 설치현황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999년 6월 현재 전국의 각 대학이 사회교육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총 235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일반대학이 151개 교이며 전문대학이 84개 교이다(교육부

비공개 자료).

교육대상에 있어서는 일반인, 즉 일반시민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부의 경우는 대학기관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상 특별히 여성, 노동자, 농민 등의 특정 대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2) 교육프로그램의 현황

대학 사회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해 보면, 대학간에 유사한 과정들이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도 하지만, 매우 다양한 과정 및 강좌들이 개설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대체로 그 내용과 목적의 성격상 몇 가지 영역 즉, 일반교양과정, 직업관련 전문교육과정, 대학 전공관련 교육과정, 독학사 준비교육과정, 특수목적 전략과정 등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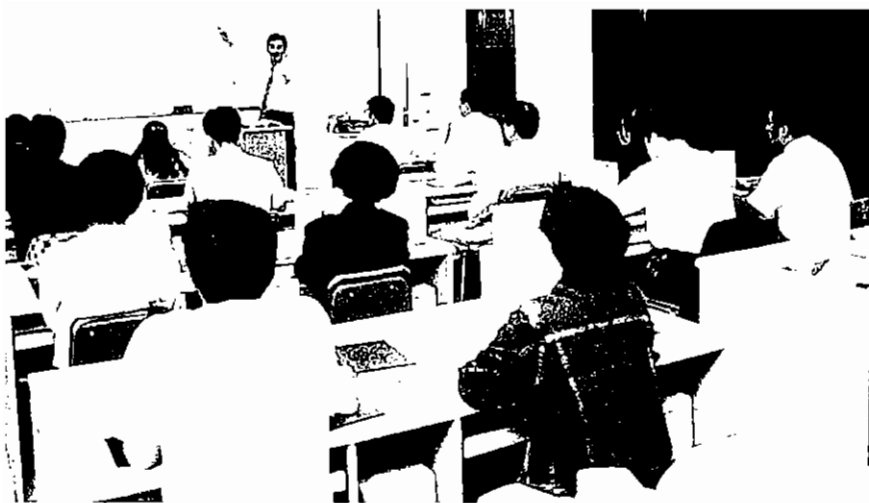
3) 대학 사회교육원의 운영상황

교육참여자들의 인적 특성은 과정 및 강좌별로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로 중년층의 여성이 주류를 이루며 직장인, 일반시민, 노년층 등으로 구성된다. 연령별로는 일반과정의 경우는 30~40대가 주류를 이루며, 노인교육과정의 경우는 50~60대로 구성된다.

학력수준별로는 대체로 고졸자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강좌에 따라서는 대졸자의 구성비도 높은 편이다. 특히 전문과정 및 특수목적 전략과정의 경우는 대졸자가 주류를 이루며, 독학과정이나 학위학점은행과정, 대학교양과정이나 대학전공과정은 고졸자가 대부분이다.

참여자의 모집은 특별한 과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성, 학력, 연령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수용인원수만큼 선착순으로 정원을 구성하고 있다.

사회교육 담당자 집단은 대체로 해당 대학의 전임교수들이 출강하는 것을 위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외래강사나 전문가를 초빙한다. 그러나 점차 외래강사 의존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강사료 등의 이유 때문에 전문가 초빙



보다는 관련부문의 신진 강사들(석사학위 소지자 혹은 박사과정생)의 활용이 늘고 있다.

교육시설은 대부분 해당 대학의 내부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나 사회교육원 자체의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사회교육원 자체의 시설 확보상태는 학교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강좌의 수강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세미나실, 강의실, 연구실, 행정업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교육용 기자재 설비는 사회교육원 자체가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해당 대학의 내부시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대학 사회교육원의 교육평가는 정규 대학과정과는 달리 엄격한 시험이나 과제물 부과 등이 거의 실시되지 않으며 주로 수강자의 출석 및 참여율, 성실성 등을 고려한 느슨한 형식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대체로 80% 이상의 참여를 요구하며, 이에 따라 소정의 과정별 이수증이나 교육기관이 인정하는 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4) 특징적 경향성과 문제점

전국 대학 사회교육기관들의 운영상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특징적 경향성과 문제점을 논의하면 대학 사회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은 향후 사회교육기관의 운영상에서 반드시 숙고해야 할 사항일 것이다.

첫째, 중산층 중심적 경향이 강하다. 개설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그 성격 그리고 운영방식은 다분히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들의 흥미와 요구를 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나름대로 교육참여자에게 학습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면을 갖지만,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이들을

배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실용적 성격의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다. 대체로 직업상의 필요성이나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교육참여자의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들 관심에 따른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프로그램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유교양교육의 지향성을 퇴색시키고 사회교육활동을 지나치게 도구화함으로써 현실적응적인 성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상업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각 대학은 대학 사회교육 활동을 수익사업화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그 결과로 적극적인 교육봉사의 의미를 갖는 프로그램이 최소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 사회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적 취약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대학 사회교육 참여의 본래적 의미를 회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봉사적 성격이라는 기본적 지향성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는 과제를 대두시키고 있다.

넷째, 각 대학이 개설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대체로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 이는 각 대학이 가진 특징적인 조건이나 상황을 적극적으로 살리지 못한 채 상호모방이나 학교 편의를 따르고 있으며, 특히 대학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현실적 요구나 해당 대학의 특성을 제

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교육 전담기구로서의 대학 사회교육원이 모두 대학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어 있으며, 따라서 대학 조직상 주변적 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기능상으로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대학관계자들에게 대학 사회교육기관이 대학 내에서 주변적인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이것이 대학 사회교육의 사회적 효용성과 발달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섯째, 대학 사회교육이 '인간을 성장·발달시킨다'는 교육원칙을 파손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요자들이 친목, 사교, 여가, 취미, 오락 수준에서 사회교육을 요구하는 경향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사회교육기관 자체가 사회교육목적 개념을 분명히 하지 않는 개념적 착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4. 대학 사회교육기관의 발전방향

1990년대 들어와서 대학종합평가의 덕분으로 대학 사회교육기관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그러한 양적인 팽창이 곧바로 발전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각 대학 사회교육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안내 책자를 보면 요란스러운 만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한 번도 개강조차 못한 것들이 대부분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남들이 장애 가면 거름지고 장애 간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많은 사회교육기관들이 기존의 대학 사회교육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아무런 검토도 없이 되풀이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몇몇의 소수 대학 사회교육기관을 제외하고 '80년대의 왕성했던 교육활동이 '90년대 들어와서 오히려 축소되고 위축된 느낌이 든다. 더구나 IMF 체제에 들어서면서 대학 사회교육은 그 위기감을 떨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대학 사회교육의 역사가 짧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10년 미만의 역사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현상을 너무 초조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대학 사회교육의 지향에 대한 재검토

평생교육의 개념이 30여 년의 역사를 가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평생교육에 대한 실천적인 면에 치중한 나머지 이론적 정립에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다. 특히 평생교육의 이념이라든지 방향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구를 떠난 배가 목적지도 모르면서 이리 저리 떠다니는 식이다. 교육의 이념이나 방향설정은 교육활동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다. 한국의 평생교육의 이념이나 방향이 설정되고 그 속에서 대학의 사회교육의 역할이 규정되어야 한다.

2) 봉사적 개념의 전환

일반적으로 대학의 기능은 교육·연구·봉사라고들 한다. 대학이 성인들을 교육하는 것을 봉사적 역할로 간주해 왔다. 따라서 대학은 성인교육을 봉사적 차원에서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 일종의 부수적 활동 정도로 취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의 틀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대학은 교육기관이다. 그 대상이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그들을 지적·도덕적·전문직업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이 대학의 주된 사명이며 기능이다. 따라서 성인교육도 대학의 본질적 임무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야 마땅하다.

대학은 성인교육 혹은 지역사회교육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느냐의 입장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한국의 대학평생교육은 이제 대학의 새롭고 진취적인 교육적 시각에서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

3) 제도적 개선

대학 사회교육기관은 엄연히 대학의 한 조직으로, 한 구성체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모든 대학의 조직은 대학교육관계법에 의해 규정되는 것에 비해, 유독 사회교육기관은 사회교육법에 저촉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교육과정이면서도 대학에서 하는 것과 대학 사회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구별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시간제 학점과정은 대학 본부에서 맡고 학점은 행제는 대학 사회교육기관에서 관리하는 식이다. 전자는 대학관련 법규에 해당되고, 후자는 학점은행제도라는 별도의 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사회교육기관은 시중의 일반 학원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정부의 행정적 간섭과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결함은 대학 사회교육기관들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고 있고, 따라서 대학 내 조직이면서 대학 바깥에 있는 기관으로 간주되기 십상이다. 이러한 제도적 결함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대학의 변신

① 대학구성원들의 태도

대학의 교수나 직원들이 사회교육 내지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을 좀더 적극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육의 대상을 청소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학 재학생의 평균연령이 30세 이상임을 감안한다면 대상에 대한 확대 인식은 늦은 감이 있다. 대학에서 평생교육은 이제 부수적 업무가 아니라 대학의 본질적 임무임을 자각해야 한다.

② 사회교육기관의 위상

대학 사회교육기관들은 대부분이 대학 부설기관 자격으로 설립되었다. 대학이나 대학원과 동등한 조직에서의

위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회교육기관이 소외되지 않고 그 본래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전문성 확보

대학의 사회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데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사회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자질을 겸비해야 한다. 더구나 운영의 책임을 맡은 기관장은 가능한 그런 자질을 가진 전문가들이어야 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대학 사회교육은 기존의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과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④ 행·재정적 뒷받침

1970년대나 '80년대의 사회교육은 비교적 정적 즉, 주로 교양교육 중심이었다면 '9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동적 즉, 시설 중심의 교육활동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 얼마간은 그러한 시설 중심의 교육활동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성인에게 맞는 시설과 새로운 분야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요구된다. 시설과 교육자료에 대한 투자 없이는 성인들을 유인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한 투자는 대학의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대학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뒷받침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교육기관의 장을 총장 혹은 부총장급에서 겸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의 대학 사회교육기관의 경우, 부총장이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

⑤ 제기관의 통합

현재 한국의 대학은 많은 특수대학원과 그에 따른 특별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서 그러한 기관이나 과정은 사회교육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들이다.

교육대학원, 정책대학원,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산업대학원, 예술대학원, 언론대학원, 여성대학원 등과 같

은 특수대학원들과 특수대학원들이 개설한 특별과정 예컨대, 최고경영자과정, 최고정책개발과정, 여성지도자과정 등은 모두가 대학 사회교육기관 소속으로 통합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특수대학원과 기타 과정은 거의가 재교육의 성격을 띠는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⑥ 교육과정과 방법의 다양화

대학이 그 지역사회의 문화 및 교육의 센터 역할을 한다면 그 지역민들의 교육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이라 하여 모든 교육수준을 일률적으로 대학수준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 물론 대학 학위나 자격을 요하는 과정은 엄격한 평가를 전제로 하여 대학다운 수준을 유지해야 하지만 비학위과정 혹은 비학점(non credit)과정은 대상의 다양성을 위한 것인만큼 교육과정 운영 수준도 달라야 한다. 문맹자 문해교육까지도 대학 사회교육기관들이 교육봉사적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대상의 교육과 성인 및 노인 대상의 프로그램도 교육봉사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사회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교육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간이나 장소를 방법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 전일제나 정시제(part-time), 주간 또는 야간, 주중이나 주말, 계절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교육활동의 장소 개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원거리의 교육도 가능해졌다. 사이버대학은 대학 사회교육기관의 피할 수 없는 미래상이 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지역 대학들이 유행처럼 실시하고 있는 여행과정도 한국의 대학에서 시도할 필요가 있다. 관광과 학습을 겸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교실에서의 강의와 연계하여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학점인정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대학 사회교육기관은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방법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5) 전국 대학 사회교육위원회의 조직

1989년 계명대학교에서 한국대학사회교육협회가 9개교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는데, 10년이 지난 현재는 123개의 회원교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대학사회교육협회의 성격은 당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성격이 많이 변해 버렸다. 당초의 의도는 규정에 명시된 대로 상호 협조와 전문성을 함께 추구하여 명실공히 한국의 사회교육을 이끌어 간다는 취지였으나, 현재로는 전문성을 거의 배제하고 대학 사회교육기관들의 친목도모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대학사회교육협회의 회칙 또한 기관장의 모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 보직의 변경만큼이나 그 모임의 회원들이 자주 바뀌고 있어서 운영의 지속성 내지 전문성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차체에 대학 사회교육기관이 한국의 사회교육을 이념적으로 이끌고 지도할 수 있기 위하여 새로운 조직체가 필요하다. 그 새로운 조직체 속에서, 각 대학 사회교육기관들의 정보교환과 교육프로그램의 평가 그리고 한국 평생교육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새로운 조직체는 단순히 기관장들의 모임으로 한정하지 말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와 종사자들의 나눔의 창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새로운 조직체는 한국대학평생교육위원회와 같은 명칭으로 할 수도 있다.

6) 민중교육적 관념의 형성

교육이 가장 필요한 대상은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일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육기회의 혜택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학 사회교육기관들은 특별한 배려를 베풀어야 한다. 그들을 위한 교육과정적 개발과 방법적 개발, 재정적 혜택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사회구조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에게 보다 큰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차이의 원리'에 따라, 정부와 대

학이 함께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보상에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교육이 사회통합을 꾀하는 적극적 기제라고 한다면, 대학 사회교육에 부여된 과제도 이를 넘어서지 않는다. 그런데도 대학 사회교육이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기능한다면,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 사회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의 기제임을 자임해야 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학 사회교육의 근대성, 합리성, 사회적 적합성이 불박혀 있다. 이런 점에서 대학 사회교육이 민중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는 정당화 근거가 성립한다.

5. 맺는 말

현대의 특징이 '급격한 변화'라고 일컬어지지만, 이렇게 빨리 사회가 급변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또 두렵기까지 하다. 대학의 변화도 예외일 수는 없고, 따라서 대학사회교육 내지 평생교육기관들의 변화도 당연하다. 사회의 변화와 그 변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교육적 프로그램도 획기적 변화를 요구 받고 있다.

대학 사회교육은 개인과 사회의 학습화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하였고, 대학 사회교육기관이 그러한 과제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가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한국 대학 사회교육기관들은 그 설립의 역사가 일천하여 현재로서는 그 교육적 영향력이 미미하고 학교 안팎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회변화에서 오는 조짐은 대학이 평생교육 내지 사회교육을 외면할 수 없도록 변해 간다는 것이다. 대학의 교육 대상이 청소년층에서 차츰 성인층으로 옮겨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보면, 머지않아 우리 나라의 대학들도 성인교육 혹은 재교육을 위한 준비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학 사회교육기관의 발전은 바로 변화하는 사회와 그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성인들의 학습욕구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법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관심과 배려는 물론, 대학당국이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박노열

광주가톨릭대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Detroit에서 석사학위, 대구효성가톨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계명대 교수로 재직중이며 계명대 사회교육원장과 한국대학사회교육협회 수석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사회교육학개론』, 『사회교육방법론』의 다수가 있다.